

文, 안보 내세워 중도층 잡기...安, 진보·보수 맞춤형 메시지

대선 정책 전환... '1위 싸움' 가열

文 “北 도발 계속뎀 사드 불가피”
통신비 인하 민생 공약도 쏟아내

安 “중소·벤처 키워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강조 진보층에 다가가기

대선판도가 양강구도로 바뀌면서 선두를 다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전면적인 대선전략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문 후보 측은 그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보와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걸면서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그동안의 추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내진김에 ‘대세 후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세적 행보에 나섰다.

문 후보는 ‘안보’를 본선 승부의 새 좌표로 잡았다. 안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안 후보에 몰리는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이 민감해 하는 안보분야를 내세운 것이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중도 확장을 위한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안보에서는 문 후보가 확실한 강점이 있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 안보 메시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후보는 이날 “한반도 위기설 및 긴장관계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야를 넘어 각 당 대선후보와 대표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자”며 “5+5 긴급안보비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비록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반대로 제안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전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주권 부산 선대위 출범식 및 부산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맞물려 안보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문 후보는 이날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하고 고도화해나간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여부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기존 입장을 넘어 북한 태도에 따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문 후보는 나이가 이날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민생 및 지역 공약을 쏟아냈다. 그동안 ‘적폐 청산’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본선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방향을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안 후보 측은 최근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만들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한 만큼 지지율 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다 과감하고 공세적 행보에 나서, 대세를 굳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안 후보는 전날 “50%가 넘는 지지를 모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달라”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 측은 진보·중도·보수층 성향에 따라 각각의 맞춤형 메시지를 내놨다.

안 후보가 야권 후보로서 진보층 지지를 위해 택한 구호는 ‘안철수도 지적 있다’다. 일찌감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등 탄핵국면에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통해 진보층에 다가가겠다는 복안이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기존 아래에서 공정경제 시장을 위한 진보적 경제정책들도 강조할 방침이다.

실제로 안 후보는 이날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가 실력 있다’는 탄핵 종결 이후 차분해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선후보 강연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철수만 이긴다’는 보수층의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노린 것이다.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맥을 못추는 상황에서 안 후보만이 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는 전략이다.

‘안철수가 실력 있다’는 탄핵 종결 이후 차분해진

안철수만 이긴다’는 보수층의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노린 것이다.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맥을 못추는 상황에서 안 후보만이 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는 전략이다.

안철수가 실력 있다’는 탄핵 종결 이후 차분해진

최윤희·문성길...체육인 2000명 문재인 지지 선언

체육인 2000여 명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 나선 체육인 중에는 수영 아시안게임 5관왕 최윤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비롯 앤드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오경 서울시장 감독, ‘돌주먹’ 문성길 전 세계 챔피언, 농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박찬숙 전 국가대표 감독, 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홍석만(육상)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방향이 체육의 가치 및

사회적 기능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에 참여한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그동안 체육은 국민 통합과 단결에 이바지해왔으나 최근 권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며 부정의 온상으로 매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차관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체육의 숭고한 가치를 구현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문재인 후보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뜨자... 전국 지방의원 국민의당 입당 러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세론’이 거론되자, 전남지역 광역의원 등 전국 전·현직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국민의당 입당과 안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국민의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전 정철(당양구)·정연선(신안군) 의원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들 의원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은 안정적 개혁추진, 국론통합, 갈등 조정 등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에 입당해 무능한 폐권주의를 종식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박동수(순천5) 의원도 최근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전남도의회

의원 57명은 당직별로 민주당 30명, 국민의당 24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전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여 명도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현 서울시의원인 김동승 의원은 이날 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이원석 포천시의회원과 류재빈 포천시의회 부의장, 박낙영·이병욱 전 지역위원장 등도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향후 국민의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도 10일 국민의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장미대선 가늠자’... 오늘 전국 30곳 재·보선

경북 국회의원 1곳·전남은 해남·순천·여수 지방의원 3곳

국회의원 선거구 1곳을 포함해 총 30곳에서 치러지는 4·12 재·보궐선거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전남에서는 해남 제2선거구(도의원)와 순천 나선선거구·여수 나선선거구(시의원) 등 3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의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인 경북 상주·의성·군위·정송에는 총 6명이 출마했다. 이중 원내교섭단체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자유한국당 김재원,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 등 3명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하남시와 경기 포천시, 충북 괴산군 선거구에서 치러지고,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7곳,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19곳에서 각각 열린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총 601곳의 투표소를 운영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로 가서 투표

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4월7~8일)에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다. 투표 마감 및 개표 시작 후 당락의 윤곽은 이른 밤 10시께 나올 것으로 선관위는 11일 내다봤다.

5·9 대선을 27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재보선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지도부와 대통령후보들까지 모두 나서 전방위적 지원유세를 벌여왔다.

특히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경북 상주·의성·군위·정송 선거구의 경우 대선 레이스에서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신경전이 두드러졌다.

보수 진영의 ‘적자’ 자리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정당으로서 이번 ‘보수 뒷받’에서 열리는 재선거의 결과가 대선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복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30명 한정〉 복큐슈 美親특가 2박3일 (5/7, 5/21, 5/28 일요일 출발) 1인	198,000원~
※국내수송비, 선내식 불포함	
〈복큐슈 정통〉 뱃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은 골든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복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밭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홍도, 가거도, 흑산도 트레킹 상품 [5월 23일(화)~5월 25일(목)]

〈2박3일〉 홍도, 가거도, 흑산도 트레킹 1인	280,000원~
----------------------------	-----------

〈올포함〉 대마도 1박2일 [4월 23일] 279,000원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렇다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항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가입업체 ●예약시 개인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시/가이드봉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